

‘현대화’ 외친 민주, 노선 투쟁 속으로

민주당의 이념좌표 설정을 둘러싸고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노선투쟁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계파별 이념적 정체성을 상징했던 이른바 ‘난닝구·백바지’ 논란과 같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7일 뉴민주당비전위원회가 기존의 중도개혁 노선 대신 당의 현대화를 기치로 내건 ‘뉴 민주당 선언’ 초안을 공개한 이후 당내에서는 각 계파별 백가쟁명식 발언이 쏟아지면서 정체성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의 이념좌표로 기존의 ‘중도개혁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당의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진보’로의 전환 여부로 좁아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화라는 용어에 대한 방법론적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진보나 중도나” 계파별 백가쟁명식 논쟁 쏟아져

丁대표 “진보에는 동조...우경화 지적 수용 못해”

또한 초안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보수 진영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장 등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부분도 ‘우향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연대 등 비주류 측은 진보, 개혁적 색채를 강조하면서 초안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

여기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주류가 그동안 선명야당, 대안야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주지 못한 채 병당과 온탕을 반복하며 정체성이 오락가락했다는 견제심리가 다분히 깔려있다.

민주연대 우원식 대변인은 18일 “우리의 것을 가버리고 다른 곳을 가우려하면 안된다”며 “지금의 소모

적인 정체성 논쟁에 빠질 때가 아니라 반(反)민주 전선, 민생민주전선 등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을 확대하는 논쟁을 벌일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세균 대표 진보적 색채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조하면서도 우경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7일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고 진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류 측의 최재성 의원은 “과거부터 민주당은 중도와 개혁의 사람들이 섞여있는 정당이었다”며 “이를 아우를 현대적 가치가 새로운 진보 아닌 가 있다”고 밝혔다.

친노(親盧) 진영도 중도개혁주의

노선변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국민은 중도개혁을 이념적 기회주의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舊) 민주계는 중도개혁주의를 유지하자는 쪽이다.

구 민주계 또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진보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진보를 강화한다면 외연 확대는 물론 재집권도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중립성향 의원들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논란을 빚었던 과도한 진보 성향을 대폭 완화하는 뉴민주당 선언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의 우경화 주장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한 것 같다”며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경험삼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 전 대통령 뒤에 눈병 난 박근혜 눈병 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8일 일반에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 90여장 가운데 일부다. /연합뉴스

다시 고개드는 신종플루 공포

베트남인 환승객 국내병원 격리 입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던 도중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추정 환자로 밝혀진 베트남 여성(22)이 18일 오후 국내로 입국해 수도권 내 한 병원에 격리 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여성(22)이 18일 오후 국내로 입국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 격리 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 인근의 한 시설에 격리돼 있던 이 여성은 오후 2시50분께 구급차를 타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음압병동이 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보건 당국과 인천공항 관계자들이 전했다.

日 오사카·효고현 모든 중·고교 휴교

일본 오사카부와 효고현 등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18일 이

들 2개 지역의 모든 중·고교에 대해 휴교를 요청했다.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는 중고교에 대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교를 요청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후생노동성에서는 학교 활동과 전차, 버스 등을 이용한 통학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중고교에 대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교를 요청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美 뉴욕서 신종플루 첫 사망자 발생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 뉴욕의 린즈에 있는 한 중학교

교강인 미첼 워너(55)가 신종플루에 감염돼 치료를 받다가 17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병원 대변인 앤드루 루빈이 밝혔다. 이에 따

라 미국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뉴욕에서는 약 3주일 전 린즈의 한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 멕시코로 방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첫 증세를 보이면서 신종플루가 확산됐다. /연합뉴스

판·검사, 경찰도 줄줄이 중수부 수사실로

檢 ‘박연차 게이트’ 수사 3라운드 가속도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 3라운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전별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간부가 이번주 차례로 소환된다.

부산·경남지역의 ‘큰손’으로 알려진 박 전 회장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판·검사와 경찰, 국정원, 국제청 간부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뿌리고 다

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그동안 ‘연차수당’ 수수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된 여러 명 중에서도 박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인사를 선별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베트남 출장 당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각각 1만 달러와 5천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대검 C과장을 지난 15일 조사했으며, 돈을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 C과장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민 검사장이 박 전 회장이 거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시절이라서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8일 박전회장으로 부터 2006년께 전별금 명목으로 수백만원 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검 K검사를 소 환조사했으며 민 검사장 등과 함께 번 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 부터 항공권

구입경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고검 B판사도 부를 예정인데, B판사 역시 “박 전 회장과 면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외에 판사 출신 변호사 1명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수만~수십만 달러의 전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찰총수와 치안장관, 치안감 중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뚜렷한 1~2명만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다음달 초까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끝낸다는 목표 아래 판검사, 경찰 등의 금품수수 의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부분과 세무조사 무마로비 부분 수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합격을 거실 않아 사립 학원권이 공부방법까지 Know-How를 만든다! www.hanbit.com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수석합격 100% 합격률

한빛고시학원

02-774-0284

무상 최고 187만원 지원

에너지 최고 83% 절감 냉·난방시스템

구입시 특정한 에너지 절약비용으로 정부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C대우일렉가성공조시스템 0621 252-2900

The One

세계 최고 MBA출신 경영전문가 재흥정보회사 선택한 까닭은?

“인연의 발간실 잇는 행복출발 더윈 경영진”

더윈 by (주)정맥출판 www.theone.co.kr 0621527-3388